

전남도, 첨단세라믹산업 미래성장동력 육성

소재·부품 특화단지 목표 세라믹·대양·영암 대불국가산단에 유치 2030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해 매출 3조원 달성 목표

전남도가 첨단세라믹산업을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목표 세라믹산단·대양산단·영암 대불국가산단 등에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해 매출 3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70조대 규모로 추산되는 첨단세라믹산업은 자기, 내화물 등 전통 세라믹과 달리 광물로부터 정제 과정을 거친 고순도의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금속·화학소재보다 내열성, 내마모성, 내식성, 절연성, 생체친화성 등이 탁월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에너지, 바이오메디컬 등 국가 미래 전

락산업 분야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유치해 첨단세라믹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있을 산자부 컨설팅과 공모에 대비한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창업, 인력 양성, 실증시설 및 성능 검증 기반 등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첨단세라믹 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고 첨단세라믹 원료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전남 서남권을 연 매출액 3조 원 규모의 세라믹 원료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

다.

전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총사업비 837억원을 들여 목포세라믹산업단지에 '세라믹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라믹 원료소재부터 시제품까지 시험평가하고 제조할 설비를 갖췄다.

특히 2015년부터 시작한 '세라믹 산업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고가의 대형 시험·생산장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 양산을 중점 지원했다. 전국 120여 사가 총 174건의 시험평가 및 실증테스트를 받고 제품 생산에 들어가 2566억원의 신규 매출과 85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현재 입주기업에 18개사, 사업화 지원동에 6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전남에 제조라인을 구축할 7개사를 유치했다.

2019년에는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해 세라믹산단 투자유치 기업이 반도체·디스

플레이용 공정장비 코팅분말, 초정밀 렌즈용 고순도 알루미늄, LED용 형광체, 방열소재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세라믹 원료소재 5종의 국산화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세라믹 원료소재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알루미늄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세라믹산업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세라믹종합지원센터를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로 구축하는 사업을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과장은 "첨단세라믹 산업은 원료소재 고도화 및 제조 기술 혁신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전남이 비교우위에 있는 만큼 전남 서남권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유치해 지역 세라믹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I시제품·서비스 제작 참여기업 광주시, 다음달 10일까지 모집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인공 지능 시제품·서비스 제작지원 사업참여기업을 9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인공지능 시제품·서비스 제작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 과제를 신청 받아 3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총 26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AI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창업 교육,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 컨설팅, 규제해소 컨설팅 등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보라데이 보라데이(Look Again)인 8일, 광주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남구 여성친화사모터스 회원들이 남구청사 앞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라데이는 여성가족부가 2014년부터 매월 8일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정한 날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민단체 “어등산 개발, 중앙부처 유권해석 결과 합의점 찾길”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서진건설측에 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법정 공방 끝에 재협상에 임하고 있는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하며 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협약이행 보증금과 관련해 광주시는 예상 총사업비를 4800억원의 10%인 48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서진건설은 기반시설비 200억원을 기준으로 20억원을 내겠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보증

금이라는 지역적인 문제로 자격 박탈, 법원 소송 전, 재협상 등의 지루한 공방을 벌이는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광주시는 사업공모 당시 제시했던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됐다든 소송에서 승소해 재협상에 나서게 된 서진건설 또한 공모 당시 제출했던 제안서를 기준으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의한 공모안 있었던 만큼 더 이상의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또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협약이행 보증금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합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 계획 수립 후 여러 차례 협약이 파기돼 골프장 조성 외에는 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태. 서진건설은 2019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광주시와 사업협약 체결을 추진했으나 협상 난항 끝에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소송을 거쳐 회복했다.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재협상을 시작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두 달여간 벌여온 협상을 최근 종료했으며, 중앙부처에 협약이행 보증금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60곳 조성

2023년까지 175억원 지원

전남도는 오는 2023년까지 175억원을 들여 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전방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60개소 구축을 목표로 수출 예비단지 등을 추가 지정하고, 딸기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지만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정 규모에 미치지 못한 단지로 농업법인을 2022년까지 수출 예비단지(20개소) 등으로 지정하기 위해 40억원을 투입한다.

지정기준에 맞게 면적을 늘리고, 유통시설 등을 구축해 농산물전문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수출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딸기의 지원대책도

확대한다.

올해 23억원을 지원하는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2022년까지 60억원으로 확대하고, 딸기 수출 전문단지 10개소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40억원을 지원한다.

또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매년 4억원을 지원하는 전문단지 육성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수출 농가에 대한 우대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이 우수한 농가 사업에 우선 선정되도록 2022년 사업 시행지침과 평가 계획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도 레지던스 고급 주거단지 변질 막겠다”

광양만청, 관광시설 구축 계획 제시

여수 경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당초 목표로 한 세계적 해양 관광단지 조성보다는 초고층 레지던스 건축 등 부동산 개발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 광주일보 2021년 4월 7일 1면>과 관련, 관할청인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관광시설 구축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 사업안을 제시했다.

광양만경제청은 8일 "오는 2024년 경도 연륙교 개통 시기에 맞춰 당초 계획한 관광시설,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단지 구축을 마치고 일반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시설 착공은 경도 내 경호초등학교 이설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3년 3월 시작해 연륙교 개통 시점인 2024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광양만경제청은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했다.

사업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컨소시엄 측은 우선

관광시설 중 하나인 해수욕 조성의 경우 오는 5월 공유수면점사용권 등 관련 인허가 취득 절차에 나선다. 인공 해변을 모티브로한 해수욕장은 2024년 하반기 조성이 완료되면, 여수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해상케이블카는 연례 노선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중 인허가를 취득한 후 2024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광양만경제청은 설명했다. 여수 내륙 국동항과 경도를 잇는 연륙교 진입부에 구축하기로 했다가, 백지화돼 논란을 부른 마리나시설은 장소를 옮겨 경도 내에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당초 마리나시설 구축 부지에 들어설 타워형 레지던스(1184실)의 경우 "부유층을 위한 고급 주거단지로 변질을 막고, 분양권을 취득한 회원이나 관광객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형 숙박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농지연금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지켜!

사랑은 내리사랑?
이제 농지연금으로 올림사랑 하세요~

만생의 금이다! 자식 걱정 없이 열린 우리 부모님
이제껏 받아온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골골하게 따져보고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선물하세요

농지연금이란?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애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서
권익이나 양태로 인한 추가소득도 가능하며, '숨겨진' 가업 시
부담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r.kr)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세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연금지급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 (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K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

장성군 백양사 부근

명품 한옥 전원주택 매매

전통 한옥명장이 대목장이 건축

- 대지 754㎡, 건물 142㎡
별도 담 704㎡
- 민박, 펜션 등 건축 가능
텃밭,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 가능
- 내부구조: 방 3개, 거실, 욕실 2개
별실 민박 운영 가능
야외 평상, 야외 화장실 등
- 중앙관정 설치
→ 지하 150m 암반수 사용
- 500만~1천만원 상당의 조경수
→ 주택 가치 상승

매물 가격 : 12억원 (일부 조정 가)

위치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풍로 1959-7 **면적** 건물 142㎡ 대지 754㎡ / 441평 100평 ↑

상담문의 062)226-7501